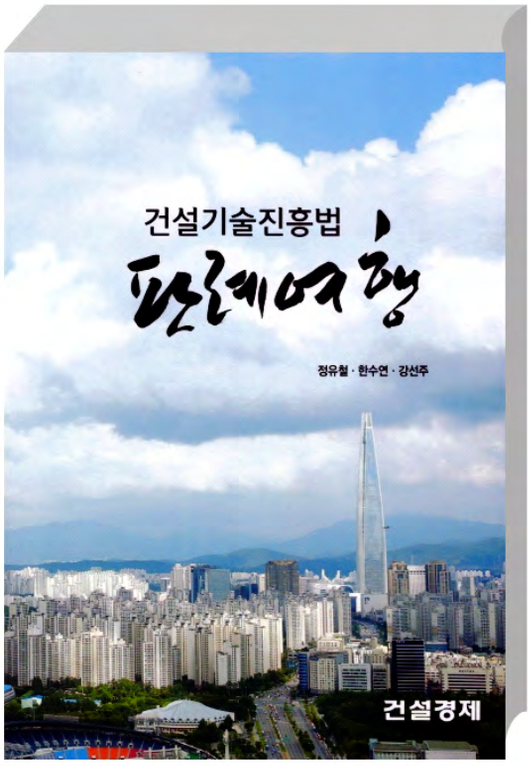
#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

## "건설사업관리 경쟁력, 그 해법을 찾다"

**법무법인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의** 정유철, 한수연, 강선주 변호사가 건설사업관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법을 담은 신간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을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




저자 – 정유철 · 한수연 · 강선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발행 – 건설경제신문

신간 도서는 건설현장 실무가들의 병법서라 불리던 「공공계약 판례여행」에 이은 2번째 '판례여행' 시리즈다. 건설기술관리의 법적 기초에서 출발해 설계나 감리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세부내용을 담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판례 해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상황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저술한 저서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필독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설, 설계, 건설사업관리, 신기술, 업무정지, 부실벌점, 형사처벌로 장(章)을 나누어 기술했고, 부록으로 2019년 7월 1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업무정지, 부실벌점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어떤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다방면으로 분석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쉬어가는 페이지 등의 코너를 통해 계약문서, 소멸시효, 집행정지 등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건설 전문가들의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도 담았다.

**신간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기대는** 이미 뜨겁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 책에 대해 "딱딱하고 어려운 법 조문들을 실제 판례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책, 대한민국에서 건설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펼쳐봐야 할 책"이라 평가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우리 기술인들을 따뜻하고 친절한 시선으로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고 있어 반갑게 접할 수 있는 책"이라 설명했다.

저자인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분쟁은 질적·양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갈수록 하나의 팀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판례여행」과 함께 더 많은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더 넓은 세상에 퍼질 수 있기를, 관련 분야의 법적·제도적 규율이 보다 선명하게 정비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